

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1. 28.(금) 09:00
-------	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	책임자	과장 김영훈 (044-215-2730)
		담당자	서기관 김태웅 (kimtw41@korea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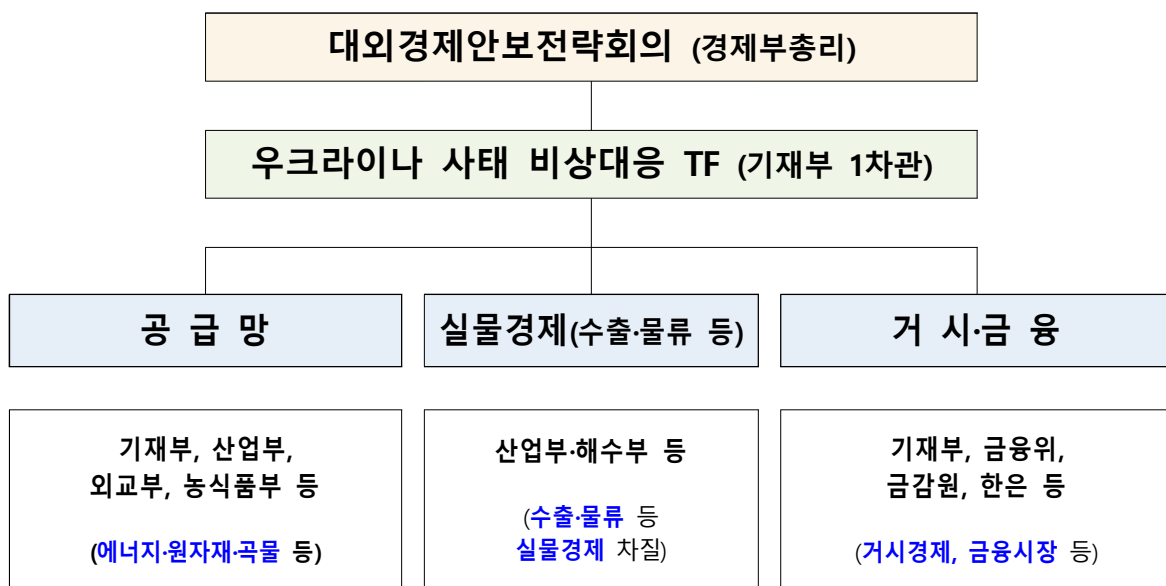
관계장관회의(녹실회의)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

-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.28(금) 07:30 정부서울청사에서 「관계장관회의(녹실회의)」를 개최하여,
 -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‘우크라이나 사태’와 관련하여 경제적 영향을 점검하고,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음
 - * 참석자 : 경제부총리(주재),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국무조정실장, 외교부 2차관, 경제수석
 - * 안건 : ① 우크라이나 사태 진행상황 및 전망
②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계획
-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美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, 오미크론 확산 등과 함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경기회복의 주요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음
- 참석자들은 對러시아·우크라이나 교역규모, 원자재·곡물 비축물량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·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,
 - * 교역규모(‘21년): (러시아) 수출 1.5%, 수입 2.8% (우크라이나) 수출 0.1%, 수입 0.1%
 - * (에너지) 석유·천연가스 등 장기계약 중심 도입, 정부 비축유(IEA기준 107일분) 확보 (곡물) 사료용 밀은 9~10월, 사료용 옥수수는 5~6월까지 필요한 물량 계약완료
- 對러시아 제재강화 등 사태 악화시, 금융시장·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, 대응체계와 상황별 대응계획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키로 하였음

❶ 既 구축한 범정부 「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(팀장 : 기재 1차관)」를 본격 가동하여 분야별 상황 점검

- 공급망 · 실물경제 · 거시금융으로 구성된 TF 점검반을 통해 분야별 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주 2회 TF를 개최하여 상황 공유 · 대응
- TF 점검 및 논의사항을 토대로 「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」에서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점검 · 마련(2월중)

<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범정부 경제분야 비상대응 체계도 >



❷ 단계별 · 분야별(①공급망 · ②실물경제 · ③금융시장) 대응계획 수립

- ①품목별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 마련, ②수출 및 현지생산 판로 · 금융 지원, ③금융 · 외환시장 동향 모니터링 및 필요시 적기 시장안정조치 시행 등 분야별 Action-Plan을 촘촘히 수립

❸ 우크라이나 · 러시아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파악 · 지원하고, 관련 영향이 우려되는 국내기업과의 소통 채널 운영